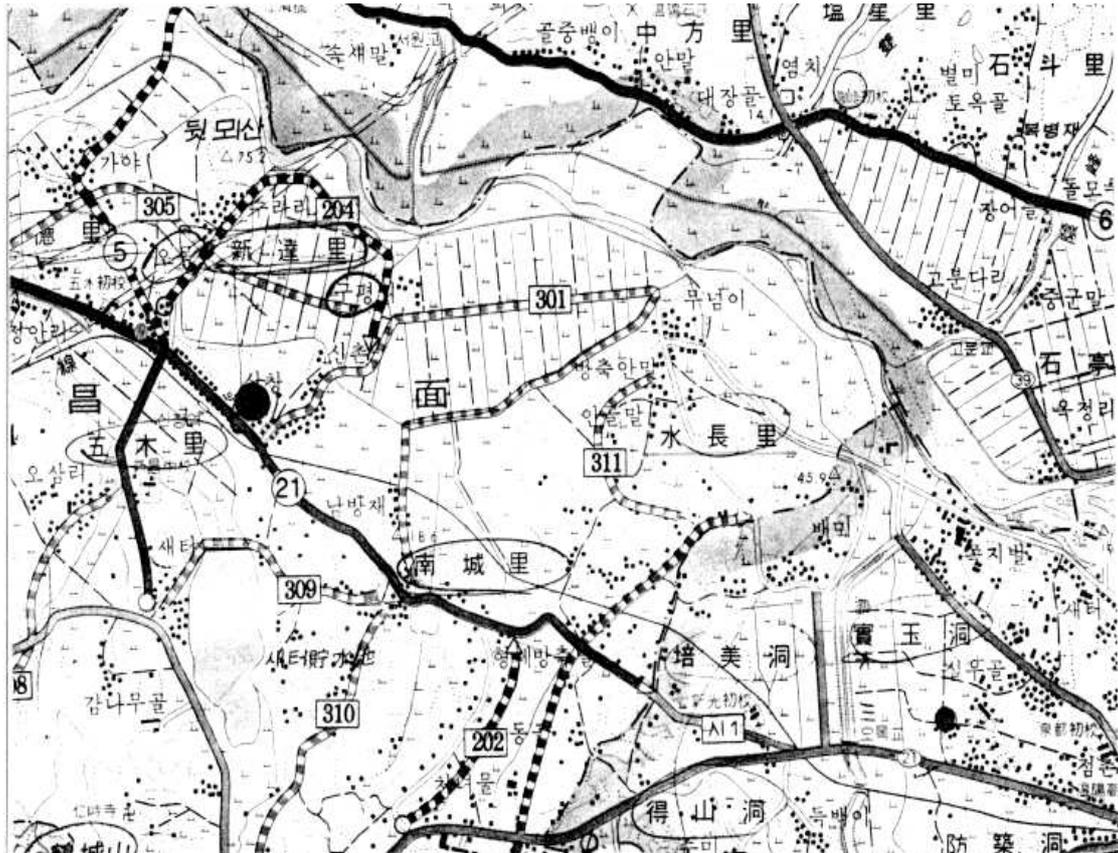


* 마을사 *

수장리·水長里

수장리는 신창면의 한 마을로 무너미, 안말로 나뉘어 지며, 총 461명으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호구수는 131호가 살고 있으며, 본래 신창군 소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장구포리, 수여리, 수남리, 구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수여와 장구포의 이름을 따서 수장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속했다가 1921년 명칭 개정으로 신창면에 편입 되었다.

<수장리 위치도>



☒ 무너미, 안골 마을 (수장리)

수장1리는 무너미, 장구포로 나뉘며, 무너미 마을은 수장리에서 가장 큰 마을. 낮은 산부리에 있는데, 홍수가 나면 곡고천의 물이 넘어 들어오기도 하며, 곡고천의 물을 넘겨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무너미 또는 수여리라고 한다. 장구포 마을은 무너미 북쪽 곡고천가에 있던 마을로 지형이 장구같이 생긴 포구였는데 1926년 대홍수로 마을이 없어졌다.

수장2리는 안골, 방죽안말, 숨밭으로 이루어 졌으며, 안골마을로 무너미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룻니데 일부는 실옥동과 병합하여 실옥리가 되었다.

방죽안말은 무너미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서송제의 안쪽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조사당시 수장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무너미 마을은 위도 36-48-10, 경도 126-58-1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무너미는 면소재지에서 301번 도로를 따라 2.8km 되는 지점에 급경사 길이 있는데 그 모퉁이에 있는 마을이 무너미이다.

안골 마을은 온양에서 선장방면의 도로 21번을 따라 오목교를 지나 한미 아파트를 지나 처음 오거리에서 우측으로 301로 도로를 따고 가다 보면 무너미 마을을 지나 311호 도로가 있는 마을이다.

2) 현황

무너미 마을의 총 인구는 300명으로 남자 149명, 여자 151명이다. 88세대가 살고있는데 86%는 농업에 나머지 14%는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안골 마을의 총 인구는 161명으로 남자 77명, 여자 84명이고 총 43호가 살고 있으며, 농업이 78%, 기타 서비스업이 23%로 조사 되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무너미 마을	300명	149명	151명
안골마을	161명	77명	84명

- 생 업

구 분	계	농 업	기타서비스업
-----	---	-----	--------

마을명			
무너미 마을	100%	86%	14%
안골마을	100%	78%	22%

무너미 농경지 현황은 논 80ha, 밭 43ha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유 현황을 경운기, 관리기, 콤팩트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이 2개소 있다.

안골 마을의 농경지는 논 34ha, 밭 28ha로 조사 되었고,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관리기등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노인회관을 겸한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무너미 마을	123ha	80ha	43ha
안골 마을	62.4ha	34ha	28.4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 회관	기타문화시설
무너미 마을	2개소	2개소	-
안골 마을	1개소	1개소	-

무너미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김씨 2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씨 10%, 최씨 13%, 기타 성씨가 49%로 조사 되었고,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50~70대가 가장 많으며, 점차 노령화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씨	박씨	이씨	최씨	기타성씨
무너미 마을	88호	25호	-	9호	11호	43호
안골 마을	43호	8호	8호	1호	3호	23호

- 최고령자

무너미 마을의 최 고령자는 86세의 오명수씨이다. 안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박월옥씨로 85세이다.

3) 자연경관

무너미 마을은 양쪽에 들이 펼쳐져 있고 마을에서 위쪽으로 250m 되는 곳에 작은 냇가 동서로 흐르고 있다. 마을 바로 옆에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가옥들이 위치한 본 마을은 양쪽 들보다 지대가 약간 높다.

안골 마을은 약간 비스듬히 경사진 산 밑에 위치한 마을이며, 앞쪽으로는 논이 있고 주위에는 야산이 마을을 품은 것처럼 되어 있다. 멀리 곡교천이 흐른다.

4) 마을 변천 과정

무너미 마을과 안골 마을은 본래 신창군 소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구포리, 수여리, 수남리, 구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수여와 장구포의 이름을 따서 수장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속했다가 1921년 명칭 개정으로 신창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무너미 마을에서 터를 잡고 산 성씨는 함양 박씨로 알려져 있으며 맨처음 30호 정도로 시작 되어서 120호까지 인구가 늘어났으나, 교통의 불편함과 넉넉하지 못한 농사량 때문에 40호 정도가 도시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현재는 80호 정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근에 특산 농공단지가 생김으로 조금씩 주민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안골 마을의 원거인은 알 수가 없었으며,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성씨는 광산 김씨로 8대까지 살아 온 것으로 보아 이 마을의 형성년대는 적어도 서기 1760년 약 24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6) 지 명

十 무너미 마을의 지명

- 무너미 : 수장리에서 가장 큰 마을. 낮은 산부리에 있는데 홍수가 지면 곡교천의 물이 넘어 들어오기도 함.
- 장구포 : 무너미 북쪽 곡교천가에 있던 마을. 지형이 장구같이 생긴 포구였는데, 1926년 대홍수로 마을이 없어졌음.
- 드리봉산 : 밭논들 위의 야산.
- 뒷동산 : 무너미 마을의 뒷산.
- 밭논들 : 밭을 논으로 개간하였다 하여 무너미에서 배미쪽으로 형성된 들.
- 장구포들 : 무너미에서 신창면 소재지 쪽의 들.

十 안골 마을의 지명

- 방죽 안말 : 무너미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서송제의 안쪽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 안골 : 무너미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인데 일부는 실옥동과 병합하여 실옥리가 되었음.

7) 전 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무너미 마을에 당집이 있어서 1년에 한번씩 정월 15일이면 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그 당집이 없어졌다.

안골 마을은 이월 초하루에 노인 위안 잔치를 하며, 풍물을 함께 하면서 마을 단합과 정을 나누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사람

10) 종교 현황

무너미 마을은 수장교회가 있는데 신도수는 42명이다. 안골 마을은 특별한 종교 단체가 없다.

11) 공장현황

무너미 마을의 공장이 모두 휴업중이며, 안골 마을에는 공장이 전혀 없다.

- 力대일석재: 산 15-10번지, 허가일 93.10.15., 면적 5,882㎡(휴업중)석제품제조
- 力대동산업(주): 수장 산7-30번지, 허가일 93.10.15., 면적 3,678㎡(휴업중)석제품 제조
- 力일진석재:수장 산 15-10, 허가일 93.10.15., 면적 2,812㎡(휴업중)석제품제조
- 力모산석재-수장 7-3, 허가일 93.10.15., 면적 3,678㎡(휴업중) 석제품 제조
- 力삼동산업 : 수장 산 15-10. 허가일 93. 10. 15. 면적 3,879㎡ (휴업중) 석제품 제조

12) 마을의 특성

무너미 마을은 특산물로 하우스 수박을 재배하고 포도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금치 및 야채를 재배하고 있어 마을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소득은 개인차가 있으며, 마을에는 상부상조하고 단결하는 마을로 이웃간의 정을 나누며 살고 있다.

안골 마을은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로 포도, 하우스 수박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

며, 마을에서 대대로 오래 살고 있고 특별한 전통행사는 없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는 마을이다.